

현장 근로자들이 유해·위험요인을 발견했을 때, 불이익 걱정 없이 제보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이 무엇이며 실제 조치된 최근 사례가 있습니까?

ODI 관점에서 보면, 이 질문은 단순히 "채널이 있습니까?"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**근로자 참여 프로세스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질문**입니다.

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입니다.

### Step 1. 실제 상황은 무엇인가?

질문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.

1. 근로자가 위험을 발견했을 때 어디로 보고하는가?
2. 보고 후 실제로 무엇이 조치되었는가?

ISO 45001에서는 근로자 협의 및 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, 근로자가 위험을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합니다.

### Step 2. 심사원이 찾는 리스크는 무엇인가?

만약 공식 채널이 없다면,

- 위험 발견이 누락될 수 있음
- 사고 예방 기회 상실
- 보복 우려로 인해 은폐 발생 가능
- 경영진이 현장 위험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음

즉, 위험요인 자체보다 위험정보가 조직에 전달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리스크입니다.

### Step 3. 운영 현실을 확인하는 질문

심사 시라면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.

-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누구에게 알리니까?
-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까?
- 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?
- 최근 신고 사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
- 신고 후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?
-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피드백합니까?

### Step 4. 객관적 증거(Evidence)

심사원은 "제안함이 있습니다"라는 답변으로 끝내지 않습니다.

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인합니다.

- 위험성 제보 시스템
- 안전제안서
- Near Miss 보고서
- 위험성평가 개선요청서
- 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
- 시정조치 기록
- 조치 완료 증빙
- 근로자 피드백 기록

## Step 5. 질문의 두 번째 부분이 중요하다

"실제 조치된 최근 사례가 있습니까?"

이 질문은 매우 강력한 효과성 질문입니다.

예를 들어 좋은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"작업자가 프레스 설비 안전커버 손상을 발견하여 익명 안전제안함으로 신고하였고, 3일 내 교체가 완료되었으며 전 공장 동일 설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."

이 경우 심사원은 다음 Evidence를 요청할 것입니다.

- 제보 기록
- 위험성 평가 검토 기록
- 작업지시서
- 설비 보수 기록
- 완료 확인 기록

## ODI 심사 판단

만약 조직이

- 공식 신고채널을 운영하고,
- 익명성 또는 불이익 금지 원칙을 보장하며,
- 실제 신고 사례와 조치 기록을 제시할 수 있다면,

이는 근로자 참여 프로세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긍정적 Evidence가 됩니다.

반대로,

- "채널은 있는데 사용한 사람이 없다."
- "최근 사례는 없다."
- "누가 신고했는지 다 공개된다."

와 같은 답변이 나온다면 근로자 참여의 효과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.

따라서 심사원이라면 다음 한 가지를 추가로 물을 것입니다.

**"최근 6~12개월 동안 근로자가 제보한 위험요인 중 실제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를 보여주시겠습니까?"**

이 질문이 문서 존재 여부(Evidence Level 1)를 넘어 실제 운영과 효과성(Evidence Level 2~3)을 확인하는 핵심 질문입니다